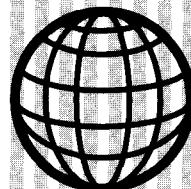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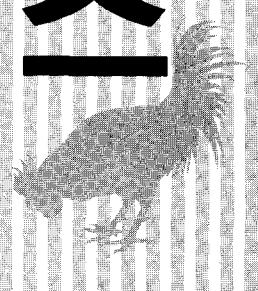


# WORLD POULTRY NEWS



## 해외양계 뉴스



러시아

### 미국산 '닭고기 분쟁' 타결

러시아는 지난 3월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보복에 맞서 미국의 닭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으나 닭고기 검역기준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면서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하였다.

새 합의에는 검역 기준과 절차, 검사 지침 및 과정, 위생 기준, 통관 서류작성 양식 등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미국산 닭고기에서 항생물질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4월 15일에는 수입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한 바 있으며, 만족할 만한 개선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YTN)

중국

### GMO(유전자조작) 닭 연구진행

중국에서 처음으로 닭 유전자변이학 연구를 위해 설립된 FXB사가 상하이 대학의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유전자변이형 닭과 계란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고 중국의 한 식품협회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FXB사의 관계자는 현재 닭에 대한 많은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 수입된 유전자조작 콩이 실험의 주 재료인 것으로 밝혔다.

그는 유전자조작 닭은 성장율이 빠르고, 바이러스에 강하며, 저콜레스테롤 계란 생산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계란의 경우는 인체에 필요한 고-지단백질, 혈청, 항체 등을 형성하는 물질들을 다량 추출할 수 있으며, 백신의 재료로도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며, 특히 항암제 생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PI)

## 인 도

### 계란 학교급식 중지로 난가폭락

인도에서 계란생산량이 가장 많은 Tamil Nadu 주(州)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학교급식에서 사용되어 오던 계란을 감자로 대체하는 정책을 쓰는 바람에 계란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위축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mil Nadu는 계란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해 일찍부터 일주일에 750만개의 계란을 사들여 왔으며, 나마칼지방에서 매일 생산되는 1천만개의 계란중 10%를 학교급식의 식자재로 중간상인들을 통해 납품을 해오는 등 계란소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간상인들에 의해 급식된 계란중 ‘썩은 계란’이 적발되면서 전면 시정될 때까지 납품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PI)

## 네덜란드

### 살모넬라 감소 노력

네덜란드 생산자들은 가금산물에서의 살모넬라(Se, St)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생산자 단체인 EEP(가금계란생산조직)는 네덜란드내의 가금산물에 대해 살모넬라가 전체 조사 물량중 2% 이내가 나와야 한다는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동안 조사했을 때 52%에 해당하는 가금산물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따라서 HACCP적용 등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지난해 말에는 10%정도로 낮아지는 효과를 보았으며, 금년말에는 5%이내로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EP도 생산자들이 SE와 ST의 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백신을 사용하는 것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PI)

## 인도네시아

### KFC 급성장

인도네시아의 프랜차이즈를 선도하고 있는 KFC가 금년도의 매출액이 지난해 보다 25% 늘어난 7,400루피(한화 약 962억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양계산업 전반적으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박람회 유치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농가에 보급,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KFC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1년에도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무려 40.5%나 급증하면서 5,940루피(약 772억원)로 순수익만 33억원을 기록한 바 있으며, 금년 4 개월 동안의 매출액도 전년 동월 대비 31.6%를 기록하면서 전망을 밝게 했다. 따라서 KFC는 50여개의 새로운 점포를 각 지방에 추가로 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P)

## 일 본

### 닭고기 출하량과 가금처리 비율

일본의 닭고기 출하수수는 전국에서 5억 6,788만수로 나타났으며, 이중 가고시마현이 19%, 미야자끼현(18%), 이와테현(15%), 아오모리현(5%), 훗가이도(4%), 도꾸시마현(3%), 사가현(3%)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가금종류 별 가금육처리물량은 174만1,978톤으로 나타났는데 닭고기의 비율은 89%, 폐계는 9%, 기타 육용계가 2%로 나타났다.(鶏鳴新聞)